

# 이정현 수성이나 野 탈환이나 전국적 관심

##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 <4> 순천

순천에서는 호남 유일의 지역구 여당 의원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전 순천시장, 국민의당 구희승 변호사, 민주당 최홍준 전 한국청년회의소(IOC) 중앙회장, 민중연합당 정오군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 무소속 박상욱 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등 5명의 후보가 도전에 나섰다.

이곳은 여야의 싸움이 돼,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 총선과 유사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 초반 이 후보와 노 후보, 구 후보 간 3자 대결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도는 다소 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양강, 3강 등 후보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초 수도권과 같은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자 구도면 무조건 이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야권표의 분열로 이 후보가 이득을 본다 분석이다. 그러나 양강구도라면 '반(反)노관규' 표가 이 후보에게 갔지만, 이제 구 후보는 대안이 있어 이 후보가 그런 득표를 기대할 수 없게 돼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구 후보의 득표력이 주목된다. 구 후보가 선두를 다투는 3강 구도를 형성, 야권표가 반분된다면 이 후보 재선에 유리하지만 2강1중의 3자 구도는 이 후보에게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다.

노 후보 측은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양강 구도가 아니고 1강 독주체제다"며 고 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럼에도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측생각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 측은 "이번은 4·27 보궐선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그때는 (이정현 후보를)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정현 의원은 검증과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순천시민들이 더는 새누리당에 속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의문시 하며 현재 선거구도를 양강구도로 보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원래 여론조사 응답률은 보통 3% 안팎이 일반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이정현	노관규	구희승	최홍준	정오군	박상욱
나이	57	55	53	54	39	51
역력	·현 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홍보수석	·전 새천년민주당 예결산위원장 ·전 순천시장	·전 산자부 장관 ·전 광주지법 판사	·당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전 JC 중앙회장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 ·전 김선동의원 수석보좌관	·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전 민중총선본부장
공약	·순천을 동계전지훈련 메카로 조성 ·25조원 규모 광양만권 활성화 대책 구제화	·순천만-국가정원간 동천주변습지 복원 ·연향천 물길 복원 ·신도시 생태공간 조성	·해룡·율촌산단 신재생 에너지벨리 조성 ·순천경계포럼 결성 ·대안형 공립고 설립	·청년보육 1만명 육성 프로그램 마련 ·국제정원벤처산업 육성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정유재관전지역 역사공원화	·군 제대시 구직지원금 20만원 6개월 지급 ·무상 출산·산후조리

## 노관규 "독주" 이정현 "양강" 구희승 "3강" 주장

## 소지역주의 사라져 ... 수도권 총선과 유사 구도

적이다. 그런데 최근 몇몇 여론조사 응답률은 20% 가까이 나온다. 그 이상 되는 여론조사도 있다. 그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는 착산 등 선전효과 때문이다. 바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활동한 이 후보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후보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는 지나치게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는 등 선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개외지 않는다"며 "내부 여론조사로 보면 구 후보 지지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어 3강 구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 당 지지를 상승과 함께 선두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는 민중연합당이 민노당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나오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당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20% 득표는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선 목표"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당선 가능 득표율을 4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노 후보 측은 "6명의 후보 중 3당 후보를 제외한 3명

후보의 득표율 총계는 10%를 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당 후보가 1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여 40~45% 득표율을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과 구 후보 측도 40% 득표율 당선안정권으로 내다봤다.

지지층을 살펴볼 때 노 후보는 당조직에서 확연한 우위를 보였다. 전남도의원 5명 중 4명, 순천시의회 23명 중 19명이 더민주 소속이기 때문이다. 또 당내 경선 후에 패배한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노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 측은 그러나 "과거의 끈끈한 당조직과는 달라 노 후보는 자만하지 않고 시민 속으로 파고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더민주의 사·도·의원이 총집합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직 선거를 하지 않고 오로지 후보 혼자 철저히 시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 후보 측은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시도의회 20여 명이 국민의당 소속이어서 조직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곡성군이 선거구에서 빠져 소지역주의는 거의 사라진 상태로 분석되며 이 후보는 주안중, 노 후보는 매산고, 구 후보는 순천고 동문의 지원을 각각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 광주시청 인근 단란주점 못 들어선다

### 상무1~3지구 등 12곳

### 지구단위계획 정비 나서

앞으로 광주시청과 가까운 상무지구 2개 블록에서는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입주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상무1~3지구를 비롯해 상무역, 운남2, 하남3, 하남상업지 동측,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 등 모두 12곳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510만㎡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규모와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기반시설, 교통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청과 인접한 상무1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기존 10곳에서 6곳으로 줄이는 등 단축화했다. 총(備)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같았던 것을 모든 층에 자유롭게 허용했다. 단, 광주시청 앞 2개 블록은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입주는 제한된다.

상무역 주변의 개발면적은 크게 완화

됐다. 기존에는 일정 면적(150㎡) 이상 이어야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완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남3지구, 하남성심병원, 푸른길공원 주변 등은 이웃한 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남주공 남측 지구는 현재 이용중인 도로에 맞게 선형도 조정했다. 도시계획 조례 제정 이전(2000년)에 개발한 상무 3,4지구 운남2, 신가지구는 현행 조례에 맞춰 건폐율,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주민 제안으로 접수한 하남상업지 동측과 운남주공 남측 등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지구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단독지지구 등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공익성 훼손과 특혜의혹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는 20일 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노태우 장남 조세회피처에 유명회사 설립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밝혀

###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방침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4일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3곳의 유명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명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연합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6공 정권의 비자금에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갔는지 주목된다.

노씨는 2012년 5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서 3개의 회사를 설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회사 모두 1달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이 회사들이 소유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내놨다"며 "이렇게 중층적으로 설계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주소를 홍콩으로 기재했고 2013년 5월 이사에서 사퇴했다. 이사직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쉐 카이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김정환 씨가 물려받았는데 두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이런 점에 걸쭉 노씨가 설립한 회사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설명했다. 노씨는 이와 관련, 뉴스타파에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1달짜리 회사를 몇 개 설립했지만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었다. 회사를 이용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번 자료 가운데 'korea'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1만5천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이 확인됐다. 노씨는 예초 한국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SK그룹과의 관계도 들여다봤지만, 현재는 추정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사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번 주 중 한두 차례에 걸쳐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한국인들을 공개할 방침이다.

뉴스타파는 "195명 중에 두자릿수는 신원이 확인됐다"며 "그중에 일부는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합법사업을 했다고 소명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런 소명이 적합한지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 선거 쟁점

순천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난 4·27 보궐선거 공약인 순천대 의대 유치와 '예산 폭탄' 수혈 여부가 쟁점이 됐다.

우선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과 관련, 이 후보 측은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당선되면 의대·부속병원 유치를 100%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 정부가 설립 발표한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학과 병원을 놓고 순천과 목포는 물론 창원·안동·공주·세종·인천 등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 측은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이 무산됐지 않느냐"며 "그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젠 그 공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의대 유치·예산 폭탄 놓고 "진행중" "실패" 공방

국민의당 구희승 후보 측은 "의대 유치는 실패로 본다"며 "보건의료대 유치는 속임수 아니냐. 또 그것도 박근혜 정부 말기에 순천에 올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중연합당 정오군 후보 측은 "원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이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문제 등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이다"며 "그런데 그동안 이 후보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법안 명칭은 물론 노동자 건강권 확보라는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산폭탄 공약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최근 1년8개월 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 정도면 예산폭탄 아니냐"고 반론했다. 또 "지난 2012년 여수시 예산이 9116억원 이던 것이 2016년 8814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순

천시는 7405억원이던 것을 올해 9119억원으로 늘려 1조 원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후보 측은 "예산폭탄 주장이 거짓이란 것을 시민이 알았다. 2조원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일갈했다. 또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히 여당 프리미엄이라 할 만한 예산폭탄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 측은 "2조원은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 아니냐, 또 더민주 김광진 의원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도체제 누가 가져온 예산이나,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b>초혼</b>		<b>재혼</b>	
남	女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전문직 희망 여성	의사, 변호사	32~72세
28~45세	25~3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아나운서, 회사원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VIP	26~41세	대기업 간부	36~67세
공무원(5급~9급)	간호사, 유치원 교사	회사원, 자영업	33~61세
27~42세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교사		
28~47세	25~39세		
삼성, 현대, LG직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8~47세	26~39세		
은행원, 연구원	공무원(5급~9급)		
29~49세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27~48세	25~38세		
사업가, 자영업	간호사, 은행원		
29~39세	26~47세		
세무사, 연구원	학원(음악)원장, 강사		
29~48세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스튜어디사, 영양사		
29~39세	26~42세		
교사, 교수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8~49세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상동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8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